

단편소설

컨테이너

박이수

그림=정숙영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개인전 21회  
▲저서 '색채미학' '뷰티드로잉의 이론과 실제'

**분** 명 공중전화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쇠 지붕을 두드러린 빛 소리가 딱딱해져 있었다. 차도에서 건너온 진동이 이따금씩 컨테이너를 뒤 흔들어놓고 있었다. 습기 먹은 구두들은 새 벽이 깊을수록 매운 가죽냄새를 토해냈다. 눈앞이 시큰거렸다. 차츰 더해가는 한기로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전기요를 쫓을 수도 없었다. 습해진 콘센트는 자칫하면 합선되어 전기요를 태워버리기 때문이다. 풍광거리며 뛰어다니던 대리기사의 발소리가 끊기고도 시간이 꽤 흘렀다. 감도가 들쭉날쭉한 진동이 언뜻따 등을 훑고 지나갔다.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굽이 사납게 보도블록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하천 쪽으로 사라진 뒤 분식집 화장실 쪽에서 유기견의 기척이 한 번 들려왔을 뿐이다. 나는 재채기가 차오르는 목을 녹록한 담요로 감쌌다. 지독한 한기와 적당한 위태로움에 내 몸은 이미 익숙해졌지만, 어두운 동굴 속에 누워 있는 느낌이었다. 소리란 소리가 모두 사라지자, 더욱 예민해진 내 귀는 밖에서 들리는 미세한 기척을 알아챘다. 공중전화 버튼 누르는 소리였다. 나는 몸을 질질 끌며 출입문 쪽으로 기어갔다. 전화 부스 앞에 여자가 하나 서 있었다.

더욱 예민해진 내 귀는  
밖에서 들리는 미세한 기척을 알아챘다.  
공중전화 버튼 누르는 소리였다.  
전화 부스 앞에 여자가 하나 서 있었다.

게…… 커, 커, 컨테이너도 지, 지어주고, 나, 나무로 치, 치, 침대도 마, 만들어주셨습니까. 나는 겨우 두어 마디 하고 나서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 잘했다.  
전 씨가 속삭이며 내 발 위에 갈비를 얹어 주었다. 나는 처음 그가 내게 사주었던 달달한 제육볶음을 생각하며 갈비를 뜯었다. 고깃살은 여전히 달고 부드러웠다. 낯선 남자들은 식사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전 씨 부인에게 이번 담 집세를 건네고 컨테이너로 돌아와, 수선을 마친 구두들을 다시 한 번씩 손질하여 진열대에 나란히 올려놓았다.  
나는 천천히 액셀러레이터를 밟는다. 내가 타고 있는 차는 바로 쇠로 만들어진 상자, 컨테이너다. 하나뿐인 출입문 양쪽에는 빨간 단추 같기도 하고 무당벌레의 등관 같기도 한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다. 나는 넓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발에 힘을 가한다.  
나는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차도를 건너다보고 있었다. 과식을 한 탓에 목으로는 자꾸 트림이 차올랐다. 밖의 공기는 오일의 햇살과 자동차들의 열기로 다소 후끈거렸다. 나른한 오후였다. 이십대로 보이는 여자

는 어제 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차들이 일제히 클랙스를 울려댔다. 도로 중앙에 서 있던 여자는 길을 건너지 못하고 허둥지둥 저쪽 인도로 되돌아갔다. 나는 계단을 굴러서라도 여자를 만나러 가고 싶었다. 그러나 내 몸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태고, 혹시 굶픈 걸음으로 삼층이나 되는 층계를 내려가는 동안 여자가 기다려준대도 나는 여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사람이었다. 차라리 여자가 어서 모습을 감추길 기다렸다. 통로를 서성거리던 나는 한참 후에야 고무나무 화분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다.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이 문을 닫으면 내 수입은 당장 하루에 만 원이 줄터다. 요즘은 한 번 빈 사무실에 좀처럼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 학원도 모여 있던 사층 건물이 모조리 빈 지 벌써 여러 달째다.  
컨테이너 안에 화분을 들여놓고 나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수화기를 들고 투입구에 동전을 세 개 넣었다. 주머니에서 주화를 꺼내 적절한 순서대로 천천히 숫자를 눌렀다. 마지막 7자가 남았다. 나는 7자 위에 닿은 검지를 잠시 숫자에서 떼어놓았다.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하지, 최 상무님 지난달에 구두 닦은 돈 안 주셨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닌데 짐작 생각나는 건 그 말뿐이다. 7자를 마저 눌렀다. 입안으로 고이는 쓴 침을 삼키고 숨을 고르기도 전에 안 내음이 들려왔다. 지금 개신 전화는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 나는 얼른 수화기를 내렸다 다시 눌렀다. 멍한 채 적힌 숫자를 아까보다 더 또박또박 눌렀다. 이상하게도 내가 누른 숫자는 늘 한 자리가 잘 못 눌린다는 것을 상기하며 신중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번에도 똑같은 안내음이 반복되었다. 나는 거듭거듭 숫자를 눌렀다. 반복되어 들려오는 소리들이 점점 아득해졌다.  
나는 사라져버린 번호를 쫓는다. 크고 작은 나무들이 하늘로 치솟아 개나 고양이, 사자와 코끼리 같은 형상을 하고 서 있는 길을 쫓아간다. 한참 후 팽팽골에 갈색 양과라 담요를 넣어놓은 집이 보인다. 나는 골목에서 서서 집안을 기웃거리다. 안에서 발가벗은 소년이나 꼬르르 뛰쳐나온다. 뒤통아 나온 아이들이 소년의 등쪽을 마구 때린다. 소년이 이르러라 몸을 피하자 아이들은 소년을 붙들고 강마른 몸뚱이를 다치는 대로 꼬집는다. 소년의 비명이 터질 때마다 아원 팔뚝과 등에 불긋불긋 자국이 남는다. 축축한 담요에서는 물진물진 지린내가 난다. 병신, 아이들은 합창하듯 외치고 안으로 사라진 후에 소년은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린다. 결국 소년은 골목을 벗어나 큰길로 내달린다. 소년은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안에서 자장면 냄새가 난다. 소년은 컨테이너 안을 기웃거리다. 그때 내게 자장면을 먹여주고 구두 닦는 일을 가르쳐주었던 상인이 아저씨는 한 평반짜리 컨테이너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에게 맞아서 죽었다. 나는 오랫동안 수화기를 붙들 채 전화부스 안에서 서 있었다.

**여** 자는 어제 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차들이 일제히 클랙스를 울려댔다. 도로 중앙에 서 있던 여자는 길을 건너지 못하고 허둥지둥 저쪽 인도로 되돌아갔다. 나는 계단을 굴러서라도 여자를 만나러 가고 싶었다. 그러나 내 몸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태고, 혹시 굶픈 걸음으로 삼층이나 되는 층계를 내려가는 동안 여자가 기다려준대도 나는 여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사람이었다. 차라리 여자가 어서 모습을 감추길 기다렸다. 통로를 서성거리던 나는 한참 후에야 고무나무 화분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다.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이 문을 닫으면 내 수입은 당장 하루에 만 원이 줄터다. 요즘은 한 번 빈 사무실에 좀처럼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 학원도 모여 있던 사층 건물이 모조리 빈 지 벌써 여러 달째다.  
컨테이너 안에 화분을 들여놓고 나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수화기를 들고 투입구에 동전을 세 개 넣었다. 주머니에서 주화를 꺼내 적절한 순서대로 천천히 숫자를 눌렀다. 마지막 7자가 남았다. 나는 7자 위에 닿은 검지를 잠시 숫자에서 떼어놓았다.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하지, 최 상무님 지난달에 구두 닦은 돈 안 주셨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닌데 짐작 생각나는 건 그 말뿐이다. 7자를 마저 눌렀다. 입안으로 고이는 쓴 침을 삼키고 숨을 고르기도 전에 안 내음이 들려왔다. 지금 개신 전화는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 나는 얼른 수화기를 내렸다 다시 눌렀다. 멍한 채 적힌 숫자를 아까보다 더 또박또박 눌렀다. 이상하게도 내가 누른 숫자는 늘 한 자리가 잘 못 눌린다는 것을 상기하며 신중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번에도 똑같은 안내음이 반복되었다. 나는 거듭거듭 숫자를 눌렀다. 반복되어 들려오는 소리들이 점점 아득해졌다.  
나는 사라져버린 번호를 쫓는다. 크고 작은 나무들이 하늘로 치솟아 개나 고양이, 사자와 코끼리 같은 형상을 하고 서 있는 길을 쫓아간다. 한참 후 팽팽골에 갈색 양과라 담요를 넣어놓은 집이 보인다. 나는 골목에서 서서 집안을 기웃거리다. 안에서 발가벗은 소년이나 꼬르르 뛰쳐나온다. 뒤통아 나온 아이들이 소년의 등쪽을 마구 때린다. 소년이 이르러라 몸을 피하자 아이들은 소년을 붙들고 강마른 몸뚱이를 다치는 대로 꼬집는다. 소년의 비명이 터질 때마다 아원 팔뚝과 등에 불긋불긋 자국이 남는다. 축축한 담요에서는 물진물진 지린내가 난다. 병신, 아이들은 합창하듯 외치고 안으로 사라진 후에 소년은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린다. 결국 소년은 골목을 벗어나 큰길로 내달린다. 소년은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안에서 자장면 냄새가 난다. 소년은 컨테이너 안을 기웃거리다. 그때 내게 자장면을 먹여주고 구두 닦는 일을 가르쳐주었던 상인이 아저씨는 한 평반짜리 컨테이너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에게 맞아서 죽었다. 나는 오랫동안 수화기를 붙들 채 전화부스 안에서 서 있었다.

**전** 씨를 따라 나는 그의 안쪽으로 올라갔다. 삼층은 내게 숨이 켜져 막힐 정도로 오르기 벅찬 높은 곳이다. 이 건물에서 생활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안쪽 거실로 들어와 본 건 처음이었다. 낫따란 거실엔 잡채, 떡, 갈비, 배추김치… 색색의 먹음직스런 반찬들로 가득찬 상이 차려져 있었다.  
- 오일이 야 양반 귀찮진 않아요.  
전 씨의 부인이 주방에서 미역국을 내오며 말했다.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큼직한 원뿔모형머리의 홀드레스를 입은 탓인지 덩치가 유난히 커보였고 목소리는 다른 때보다 부드럽다. 상 위에 국그릇을 올려놓는 그녀의 팔뚝은 미어터질 듯이 튼튼했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는 거의 정장에 가까운 차림을 하고 있었다. 처음 보는 남자도 두 사람이나 있었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세 사람 보였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상 앞에 둘러앉자, 낯선 남자들이 거실 귀퉁이에 놓인 카메라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나는 전 씨가 운영하는 스포츠용품점 밖에 걸려 있는 기이한 근육질의 사진들을 떠올리며, 크게 확대하여 걸어둔 전 씨네 가족사진을 올려다 보았다.  
- 많이 먹어라.  
전 씨가 갈비찜이 담긴 접시를 내 앞으로 밀어놓으며 웃었다.  
- 그분은 누구시죠?  
낯선 남자가 물었다.  
- 음,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입니다. 함께 지낸 지는 벌써 3년 정도 됐나 봅니다. 음, 가족이랑 게 뭐 별 건가요. 서로 돕고 지내는 게…….  
전 씨는 말을 하는 도중 자주 헛바닥을 깨 내 입술에 침을 발랐다. 길게 말을 이어가는 그는 꼭 다른 사람 같았다. 그의 부인은 시종 일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다리를 모으고 접창을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무척 어색해 보였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도 돌아가면서 아버지인 전 씨에 대해 각각 한마디씩 했다. 나와 비슷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모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손짓으로 대화하며 간간히 웃기도 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뭔가 할 말이 많은 사람들처럼 보였다.  
- 한 마디 하시겠습니까? 전영찬 선생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든 상관없습니다.  
낯선 남자가 갑자기 내게 물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 불쌍한 사람들을 많, 많이 도, 도와주시는 흠, 훌륭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저에

는 컨테이너가 딸린 건물의 주인이자, 내가 지내는 컨테이너를 마련해준 사람이기도 하다. 나의 왜소한 체구에 맞춰 나무로 간이침대를 짜준 사람도 바로 그였다. 구두센터를 열던 날, 그는 나를 데리고 근처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과 모자보건센터 소장을 직접 찾아가 인사를 시켰다. 그때 그는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이나 많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덕에 그들은 모두 나의 단골이 되었다. 그가 운영하는 스포츠용품점은 장사가 잘 안 되는 편이다. 그는 한가한 가게에서 아령을

했다. 몸통이 일그러지고 깨망게 그을린 높은 땀 뒤에 숨겨졌다. 아마도 그것들은 누군가에게 털어 주어야 할 것이다.  
나는 힘겹게 계단을 올라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로 올라갔다. 어찌된 건지 문이 잠겨 있었다. 나는 서늘한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칠어진 숨을 골랐다. 간밤에 본 여자는 여기까지 따라와 머릿속에서 오락거렸다. 여자의 시퍼런 발톱이 눈앞으로 스쳤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녀의 두 다리는 반듯하고 건강해보였다. 호흡이 진정되자 어수선한 통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닫힌 철문 틈에 붉은 도장이 찍힌 우편물이 꽂혀 있었다. 계단 입구에 내놓은 박스 안에는 서류봉지가 수북했다. 서류봉지 사이로 뺏뺏한 금색 명함들이 흩어져 있었다. 최 상무 책상 명함꽂이에 꽂혀 있던 것들이다. 최 상무가 있어 보이는 사장님들과 사모님들에게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나는 흠어진 명함 몇 장을 간추려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무스 냄새, 명함에서 최 상무가 늘 풍기던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입구에 놓인 화분은 나만큼이나 풀이 죽었다. 나는 층계참을 내려서려다 기우뚱거리는 몸을 끌고 창틀로 다가가 도로 쪽으로 고개를 내놓았다. 신호에 걸린 차들이 일제히 멈춰서 있는 횡단보도 중앙에 서 있는 여자는 어젯밤에 보았던 그 여자가 분명했다. 녹색등이 바빠 깜빡거렸고 사람들이 황급히 뛰어 인도로 올라서고 있었다.

자, 나는 어제 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차들이 일제히 클랙스를 울려댔다. 도로 중앙에 서 있던 여자는 길을 건너지 못하고 허둥지둥 저쪽 인도로 되돌아갔다. 나는 계단을 굴러서라도 여자를 만나러 가고 싶었다. 그러나 내 몸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태고, 혹시 굶픈 걸음으로 삼층이나 되는 층계를 내려가는 동안 여자가 기다려준대도 나는 여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사람이었다. 차라리 여자가 어서 모습을 감추길 기다렸다. 통로를 서성거리던 나는 한참 후에야 고무나무 화분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다.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이 문을 닫으면 내 수입은 당장 하루에 만 원이 줄터다. 요즘은 한 번 빈 사무실에 좀처럼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 학원도 모여 있던 사층 건물이 모조리 빈 지 벌써 여러 달째다.  
컨테이너 안에 화분을 들여놓고 나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수화기를 들고 투입구에 동전을 세 개 넣었다. 주머니에서 주화를 꺼내 적절한 순서대로 천천히 숫자를 눌렀다. 마지막 7자가 남았다. 나는 7자 위에 닿은 검지를 잠시 숫자에서 떼어놓았다.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하지, 최 상무님 지난달에 구두 닦은 돈 안 주셨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닌데 짐작 생각나는 건 그 말뿐이다. 7자를 마저 눌렀다. 입안으로 고이는 쓴 침을 삼키고 숨을 고르기도 전에 안 내음이 들려왔다. 지금 개신 전화는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 나는 얼른 수화기를 내렸다 다시 눌렀다. 멍한 채 적힌 숫자를 아까보다 더 또박또박 눌렀다. 이상하게도 내가 누른 숫자는 늘 한 자리가 잘 못 눌린다는 것을 상기하며 신중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번에도 똑같은 안내음이 반복되었다. 나는 거듭거듭 숫자를 눌렀다. 반복되어 들려오는 소리들이 점점 아득해졌다.  
나는 사라져버린 번호를 쫓는다. 크고 작은 나무들이 하늘로 치솟아 개나 고양이, 사자와 코끼리 같은 형상을 하고 서 있는 길을 쫓아간다. 한참 후 팽팽골에 갈색 양과라 담요를 넣어놓은 집이 보인다. 나는 골목에서 서서 집안을 기웃거리다. 안에서 발가벗은 소년이나 꼬르르 뛰쳐나온다. 뒤통아 나온 아이들이 소년의 등쪽을 마구 때린다. 소년이 이르러라 몸을 피하자 아이들은 소년을 붙들고 강마른 몸뚱이를 다치는 대로 꼬집는다. 소년의 비명이 터질 때마다 아원 팔뚝과 등에 불긋불긋 자국이 남는다. 축축한 담요에서는 물진물진 지린내가 난다. 병신, 아이들은 합창하듯 외치고 안으로 사라진 후에 소년은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린다. 결국 소년은 골목을 벗어나 큰길로 내달린다. 소년은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안에서 자장면 냄새가 난다. 소년은 컨테이너 안을 기웃거리다. 그때 내게 자장면을 먹여주고 구두 닦는 일을 가르쳐주었던 상인이 아저씨는 한 평반짜리 컨테이너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에게 맞아서 죽었다. 나는 오랫동안 수화기를 붙들 채 전화부스 안에서 서 있었다.

소년은 골목을 벗어나 큰길로 내달린다.  
소년은 컨테이너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안에서 자장면 냄새가 난다.  
소년은 컨테이너 안을 기웃거리다.



소년은 골목을 벗어나 큰길로 내달린다.  
소년은 컨테이너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안에서 자장면 냄새가 난다.  
소년은 컨테이너 안을 기웃거리다.  
- 비오는 날은 안에 들어와 자라는데도 고집은.  
비좁은 방안으로 들어서며 전 씨가 말했다. 전 씨의 덩치에 때릴려 나는 기우뚱거리고 서 있던 몸을 간신히 침대에 걸쳐 놓았다. 침대가 삐걱거렸다.  
- 두어 군데 새로 못질을 해야겠군.  
전 씨가 몸을 구부려 침대 밑을 살폈다. 나는 그의 육중한 몸집을 내려다보았다. 빈약한 내 다리에 올려놓은 그의 팔뚝은 육신 대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람했다.  
그는 컨테이너가 딸린 건물의 주인이자, 내가 지내는 컨테이너를 마련해준 사람이기도 하다. 나의 왜소한 체구에 맞춰 나무로 간이침대를 짜준 사람도 바로 그였다. 구두센터를 열던 날, 그는 나를 데리고 근처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과 모자보건센터 소장을 직접 찾아가 인사를 시켰다. 그때 그는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이나 많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덕에 그들은 모두 나의 단골이 되었다. 그가 운영하는 스포츠용품점은 장사가 잘 안 되는 편이다. 그는 한가한 가게에서 아령을 들고 어깨근육 운동을 하거나 러닝머신 위에서 분침을 세는 것이 일과였다. 그는 유독 근육에 신경을 썼다. 근육 발달에 좋다는 음식들도 낱낱이 먹고 있었다.  
-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전 씨는 눈자위를 속속 문지르며 길게 호흡을 했다. 그와의 인연은 생전 처음 보는 남자의 부탁을 받고 그의 가게에 심부름을 가서였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길바닥에 있는 구두박스를 일일이 찾아다니던 때였다. 나는 지친 다리를 질퍽거리며 걷고 있었다. 서른 살 정도의 처음 보는 청년이 내게로 다가왔다. 잘생기고 똑똑해 보이는 청년이었다. 그는 혹시 저 아래 사거리 쪽에 있는 스포츠용품점을 아는지 물었다. 청년은 정중했다. 나는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게 몇 마디 더 말을 시키고 나서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스포츠용품점 사장에게 이길 건 내주기만 하면 돼요. 꼭 사장 손에 전해줘야 해요. 청년은 거듭 당부하고 나서 심부름 값이라며 이만 원을 손에 쥐어주었다. 그가 말한 상자는 부피에 비해 가벼웠다. 나는 나와 다른 건장한 내 또래 청년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서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나는 심각한 언어장애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걸음도 똑바로 걸지 못하는 내가 사람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힘을 길러준다는 생각이나 기이한 물건들을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의 아내가 나를 군식구 취급하며 때놓고 눈치를 주는 것도 당연했다. 주변에서는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사람을 거두어준다고 그를 칭찬했다. 사람들은 그가 베푸는 것들에 대한 대가를 내게 물거나 혹독하게 받아내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러닝머신 분침을 통해 자신의 근력 상태를 확인하듯 나를 통해서도 자신을 확인하려 들었다. 그가 균형 틀어진 내 몸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 그의 몸이 내게 가할 수 있는 통풍의 강도였다. 아프나? 열마나? 그가 내게 하는 말들은 거의 그런 것들뿐이었다.